

젊은 호랑이들의 예술 프로젝트...광주는 '虎·虎·虎'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랑이 스쿨'

이달말부터 도심 곳곳서 프로그램
빵집 라이브·취준생 고충 공모전
지역책방 70대 소녀 시낭송 등
예비 문화기획자 아이디어 '톡톡'

70대 할머니들의 시낭송, 빵집에서 열리는 라이브 공연, 반려 식물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예비 문화기획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행사가 열린다.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랑이 스쿨' (학교장 정두용) 참가자들이 선보이는 기획이다.

'호랑이 스쿨'은 지난해 첫 선을 보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기획자들이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착안,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현장 실무형 기획자 인큐베이션'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광주시 지원을 받아 청년문화허브가 주관 기획으로 12월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갔고, 참여자들의 문화 관련 단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청년문화기획자들의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수강생 중에는 현재 4명이 문화 관련 공간에서 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김혜진(독립서점 러브앤프린), 김혜라(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김예빈(전시기획사 와사비아)씨 등이며 김태균씨는 담양에서 문화 관련 기업 '롤러방스'를 창업했다. 지난해 김혜진씨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하루 한끼 채식 위주 식사를 직접 만들어보는 '그린스 테이블(GREENS TABLE)-탄소발자국을 줄이는 1인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호랑이 스쿨' 참가자들이 진행하는 12개 프로젝트가 광주 곳곳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우리가 바라본 광주전, 바라는 광주전' (왼쪽)과 '혼자 와 BAR' 프로젝트. <호랑이 스쿨 제공>

체소 요리 만들기'를, 김혜라씨는 '우리가 바라본 광주전, 바라는 광주전'을 기획했다.

올해 열리는 신진문화기획자들의 12개 프로그램은 10월말부터 1월까지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린다.

5월 입학한 2기 수강생 등은 자라섬제즈페스티벌 인제진 감독 특강 등 집중 교육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자신들의 인생 첫 번째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펼쳐보이게 됐다. 각각의 기획도 눈에 띄지만 광주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열려 '공간을 발견하는 의미'도 더해진다.

29일 동구의 독립서점 '지역책방'에서 열리는

'꽃들에게 희망을-70대 소녀들의 시낭송이 있는 토크 콘서트와 전시' (임시영)는 문해학교에서 뒤늦게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다. 1인당 매년 배출하는 음식 쓰레기는 130kg에 달한다. 냉장고에 쌓아둔 음식들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살림의 고수 no.1-냉장고 탈탈, 밑키투 툭탁' (방윤)은 향토음식박물관에서 11월 15-19일 (오후2시-5시) 두차례 열린다.

'우리동네 1인가구 식재료 소통해요-식식한 집사들' (김정애-11월12일 신용행정복합타운 마루공간)은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원예치유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기획이며 임현후씨가 기획한 '제1회



광주광역시 취준생 고충 공모전' (11월19일-광주역 어울림팩토리 공용메이커스룸)도 눈길을 끈다

이형주씨가 기획한 '단골을 위한 노래 Vol.1' (11월 19일 오후2시-4시)은 공유된 취향을 가진 가게의 단골 커뮤니티에 라이브 공연을 들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현장 무대를 통해 라이브 공연의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뮤지션, 가게, 단골 커뮤니티의 연결고리를 통한 협업 등 확장을 시도한 기획이다. 최근 광주극장 옆에 문을 연 '빵과 장미'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밖에 '영상으로 남기는 나의 2022년 1년 하루 다이어리' (이차영-10월29일-30일 호랑이소굴),

'예술가의 고민, 흔적 - 고민으로 연결되는 예술가들' (유명진-31일-11월3일-전남대 SPACE A) 등이 진행된다.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괴로운 대학생들을 위한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마주보기 교실' (안성현-11월2일 호호스튜디오), '숨겨왔던 나의 꿈 선언식 나 이거 하고 싶어!' (심재형-11월4일 미로극장 1관), 청년 우울증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한 사진전과 토크공연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간 - 아웃스 타그램' (장태환-11월18일 호랑이소굴) 등도 펼쳐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mother'

도마·주걱... 세간살이, 예술이 되다

국윤미술관 김기현 기획초대전... 11월 8일까지

김기현 작가의 작품 '형제들'을 보면 미소가 지어진다.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곰살머리 형제의 모습이 재미있는데, 부엌이나 있을 법한 '주걱'을 캔버스 삼아 작업해 더 유쾌하다.

조각가 김기현 기획초대전이 오는 11월8일까지 국윤미술관(광장 운영월)에서 열린다.

'Kim's Histo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어느 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상 용품들을 오브제 겸 캔버스로 삼아 작업한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추억이 담긴 집안의 물품들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풍경들을 제작했다. 한껏 치장한 어머니의 모습은 도마 위에 그렸고, 강인한 눈매의

'철수형' 역시 도마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평면 그림과 함께 머리카락 등은 색색의 실을 붙여 입체감도 살렸다.

'고향가는 길', '가족' 등 도마와 빨래 방망이 원통형 채 등에 그려진 작품 속 이미지는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하는 풍경같기도 하다.

조선훈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서울롯데갤러리 등에서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현재 21c정신전, 전국조각가협회, 백화조각가협회, 남도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32-73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요들송 앵콜 공연,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광주시립합창단, 11월 4일 광산문예회관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앵콜공연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이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8월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열렸던 공연의 앵콜 무대로, 지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관객들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성악과 뮤지컬 등 여러 분야가 혼합된 크로스오버 보컬 곡을 편곡해 재구성한 혼성합창곡 '달', '밤나팔꽃' 등을 선보인다.

이어 영화 '파리넬리' OST로 잘 알려진 헨델의 '올게하소서'가 남성 독창으로, 오페라 '카르멘'의 '하비네라'가 여성 독창으로 불려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매년 지역축제 및 재능기부 등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광주 엔시안오케스트라가 함께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 '에델바이스'를 시립합창단과 연합합창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1만 원이며 6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4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무료 공연

빛소리오페라단 29일 광주아트홀



(사)빛소리오페라단이 29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

'2022 문화예술진흥 민간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본 공연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진행됐으며 이번 무대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관객들로 하여금 오페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 중 전문해설가가 무대 중간에 출연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베르디가 남긴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의 오페라라는 평을 받는 이 작품은 사교계 여성 비올레타와 연인 알프레도의 비극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

다. 상류사회의 위선을 비판해 당대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던 작품으로, 여주인공을 집중 조명하는 프리마돈나 오페라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는 리리코와 스피노, 드라마티코 등 다양한 음역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총감독과 연출에는 최덕식(사진 왼쪽) 빛소리오페라단장이, 지휘에는 박미애(오른쪽) 광주대 교수가, 비올레타 역에는 소프라노 장은영, 알프레도 역에는 테너 장호영 등이 함께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문자(010-2228-7040)로 예약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미디어아트로 통하는 Fun시티 광주' 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9일, 진시영 작가 해설

도심 속 미디어아트 작품을 둘러보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가능해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김덕진)은 오는 29일 오후 4시 '미디어아트로 통하는 Fun시티 광주'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국내 첫 미디어아트 전용관인 광주미

디어아트플랫폼(G-MAP)을 거쳐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1, 2권역을 둘러본다. 이어 미디어아트 창작 현장인 융복합스튜디오 '뉴폼스'에 방문해 진시영(사진) 작가로부터 다양한 미디어아트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아울러 옛 전남도청 미디어 파사드와 5.18민주광장 '빛의 분수대'를 방문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탐방의 해설을 맡은 진시영 작가는 현재 융복합스튜디오 '뉴폼스' 레지던스와 시온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5·18민주광장에 조성된 '빛의 분수대' 프로젝트

작품에 참여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교류마당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는 만남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과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킴, 27일 류재한 전남대 교수 강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킴/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 마지막 강좌를 진행한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과제'를 주제로 27일 오후 2시 1층 미디어라운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의 강사는 류재한(사진)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시민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에 큰 역할을 한 류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개념과 함께 창의도시 광주의 방향성 및 현주소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



야기한다.

류 교수는 광주시 발전전략연구단 문화도시분과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이사 겸 문화전담운영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한국프랑스학회 회장, 시민자유대학

학장 등을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